

**전일동향**

전일대비 3.00원 상승한 1,383.30원에 마감

8일 환율은 전일대비 3.00원 상승한 1,383.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1개월물 하락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4.20원 하락한 1,376.10원으로 개장했다. 미국 6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결과에서 실업률 상승 등 고용 둔화 조짐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하락 출발한 환율은 하방 압력에 1,37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었다. 달러-엔 환율도 하락 폭을 줄였지만 개장가 레벨을 되찾았고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소폭 하락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저가매수세로 인한 하방 지지에 낙폭을 모두 되돌리며 상승 전환했으며 1,383.3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8.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60.19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6.10	1385.00	1376.10	1383.10	1379.40
엔화	858.44	861.37	855.95	860.19	-	
유로화	1495.90	1500.83	1489.57	1497.20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75	-6.81	-14.69
결제환율(수입)	-1.3	-5.95	-12.97	-26.1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달러 반등에... 1,38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3.30) 대비 0.55원 상승한 1,381.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회복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반등에 상승 압력이 소폭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을 앞둔 관망세 속 유로화 약세에 상승 마감했다. 유로화는 프랑스 총선 결과를 소화하는 가운데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9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언급하며 약세를 보였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된 점에 낙폭을 일부 축소했다. 한편 뉴욕 연은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0%,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월대비 0.2%p씩 하락했다.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보다 0.1%p 상승한 2.9%를 기록했다. 미국 2년 국채금리는 3년 기대 인플레이션 반등에 1.70bp 상승한 4.631%를 기록했다. 금일 환율은 역내 실수요 저가매수 유입과 역외 롱플레이 등에 상방 우세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78.50 ~ 1388.00 원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297.8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55원 ↑
	■ 美 다우지수 : 39344.79, -31.08p(-0.0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3.5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634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